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 Letter

고양시 유일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5차 연속 1등급’ 획득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혈액 투석 5차 적정성 평가에서 고양시 의료기관 중 유일하게 최고 점수인 95.8점으로 ‘5차 연속 1등급’을 획득해 ‘혈액투석 최우수기관’임을 입증했다. 이번 평가는 혈액투석 관련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전국 799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력, 시설, 장비, 혈액투석 적절도와 혈관관리 등 진료 과정과 결과를 종합 평가한 결과이다. 신장(콩팥)은 혈액의 노폐물을 걸러주는 주요 기능을 한다. 하지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된 환자의 경우는 혈액투석을 통해서 혈액의 노폐물을 인공적으로 정화시켜 줘야한다. 신장내과 김경수 교수는 “혈액투석 환자는 뇌졸중, 심장질환 등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다.”며, “치료기간에 환자의 삶의 질 영위를 위해 혈액투석 시 투석 전문가의 안전하고 적절한 진료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최근 위암, 대장암 적정성 평가, 폐암 적정성평가, 유방암 적정성 평가 등에서 1등급을 획득한바 있다.

정형외과 양재준 교수, 경추용 케이지 개발 관련 기술이전 계약 체결

동국대학교의료원은 지난 8월 1일 의료기기 전문업체인 (주)제노스와 경추용 케이지 개발 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업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정형외과 양재준 교수는 전방 경추 추간판 절제술 및 유합술에 사용되고 있는 경추용 케이지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골 접촉면적을 최대화 시킨 경추 추체간 케이지를 개발하였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경추 케이지를 사용한 추간판 절제술 및 유합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케이지 침강현상과 불유합 등의 합병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날 계약을 진행한 동국대학교 의무산학협력팀 관계자는 “경추용 케이지의 사업화를 위하여 양 기관이 상호협력 하여, 올해 안에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통해 즉시 제품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4학년 대상, 병원설명회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7월 28일 의과대학 종합강의실에서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4학년을 대상으로 병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이진호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이해원 의과대학 부학장, 조성민 의료원 기획처장을 비롯해 정주호 경주병원 진료부장, 정희수 경주병원 교육연구부장 등 주요보직자와 4학년 지도교수, 동문 선배 교수, 전공의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진호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모교병원은 지속해서 발전, 성장하는 병원으로서, 동문들이 애정을 갖고 발전에 동참한다면 명실상부한 불교계의 종립병원으로서 국내 최고수준의 병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김광기 교육연구부장은 “전공의 근무환경 및 급여와 당직비 등이 대폭 개선되었고, 이는 병원 경영진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라며, “앞으로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 이후 인턴 대표들이 함께 참석하여 현장의 상황에 대한 공유와 변화하는 동국대의료원의 현실을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2017년 간호부 Open class, 성폭력 예방을 위한 강좌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간호부는 지난 7월 27일 ‘성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을 주제로 2017년 Open class를 개최했다. 간호부는 이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김지혜 강사를 초빙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한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강의는 성희롱과 성폭력의 차이, 성폭력이 일어나는 이유, 간호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간호사와 병원이 할 수 있는 일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당당하게 ‘No’라고 거절하는 것, 성폭력을 당했을 때는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전문기관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의에 참석한 간호사는 “오늘 강의를 통해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라며 “실제 간호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폭력에 대한 예방법과 대처방안으로 앞으로 즐겁고 발전적인 직장 생활을 만들어 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러시아 연방 사회보험기금 대표단 방문

지난 7월 26일 러시아 연방 사회보험기금 대표단은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견학을 위해 방문했다. 러시아 연방 사회보험기금단은 한국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으로 본원의 우수한 양·한방 협진 재활 시설들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부이사장 및 임원들로 구성해 방문했다. 방문단은 이날 러시아어로 된 병원 동영상 시청을 통하여 병원의 전반적인 사황에 대하여 상세한 소개를 받았다. 각종 검사장비와 아쿠아 치료, 재활로봇 등을 둘러본 방문단은 한 시간 가량 이어진 간담회에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 보험 시스템, 동국대학교 및 병원의 역사, 설립 과정 등 많은 질문을 쏟아내며 한국 의료 및 본원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였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앞으로도 한국의 우수한 의료 홍보와 국가 브랜드인 메디컬 코리아를 알리는 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